



아랍에미리트

고유가와 건설 붐으로 고도성장 지속 전망

최근 수년간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는 아부다비의 석유수출 호조와 두바이의 부동산 건설 붐으로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UAE 경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03년 11.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4~05년에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석유산업 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두바이의 건설 붐 등에 힘입어 각각 7.4%와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확대 등에 기인하는 비석유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UAE의 고도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석유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

최근 UAE 경제의 특징은 고유가에 기초한 석유부문의 성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표 1〉

UAE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제성장률	2.6	11.9	7.4	6.7	6.4
물가상승률	2.9	3.1	4.4	6.0	5.5
재정수지/GDP	-10.8	-4.5	-0.2	4.3	3.3
경상수지	3,500	7,600	12,700	24,900	22,800
경상수지/GDP	4.7	8.7	12.3	21.3	18.8
상품수지	14,500	21,300	28,500	42,100	40,700
수출	51,200	67,100	82,700	102,300	106,300
수입	36,700	45,800	54,200	60,200	65,600
총외채잔액	18,500	20,200	24,000	27,700	30,200
총외채잔액/GDP	26.7	27.2	27.4	26.9	25.8
DSR	2.9	2.2	1.7	1.6	1.8

자료: IMF, IFS 및 EIU, Country Report 각호.

제조업, 건설업, 관광업 등 非석유부문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非석유부문이 UAE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는 2000~2004년 중 두바이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4%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4년 중에는 1,177개의 제조업체에서 83,079명을 고용하였고 총 146억 디람(약 40억 달러 상당)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04년 UAE 총투자의 86%가 UAE 국적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걸프협력기구(GCC) 6%, 기타 8%였다. 금속제품(basic metallic mineral product)이 총투자의 43%를 차지하였으며, 비금속제품(non-metallic mineral product) 13%, 식음료 부문 12%, 기타 화학제품(chemical & plastic product)의 순이었다.

또한, 이 기간 중 제조업 분야는 연간 8%의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는바, 철강부문이 30%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非철강부문 15%, 식음료부문 14% 등으로 나타났다.

물가 불안이 경제 현안으로 대두

고도성장세 지속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물가불안이 최대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UAE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주요 생필품, 주택 임차, 보건, 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물가억제책에 힘입어 연 3%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일머니 유입 증가로 인한 시중

의 유동성 증가와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Dirham)貨의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및 공공근로자 임금 인상, 그리고 연평균 15%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부동산 임차료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되면서 최근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UAE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년 3.1%에서 2004년에는 4.4%로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6.0%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생필품 가격, 교육비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 등이 실제로는 20~40%까지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볼 때, UAE 정부의 발표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AE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상승이 지적된다. UAE 정부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두바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 175% 정도 상승했다. 이는 두바이가 영어가 통하고, 79개의 외국인학교와 최고급 의료시설이 있고, 통신 인프라가 완벽하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인 부유층이 고급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UAE 정부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거래세 없이 등록세 2%만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9월 UAE 정부는 자국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사회보장지원금을 전년 대비 75% 인상하였다. 동 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이혼녀, 노인층, 미혼녀, 불구자, 결혼한 학생 등 저소득층 6만 7천명 내외로서, 2004년도 지원예산은 6억 5,800만 디람(약 1억 8천만 달러)이었으나, 이번 인상

으로 총 소요예산은 11억 5천만 디람으로 증가되었고 1인당 연 1만 7천 디람(약 4,700달러)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 사회보장지원금 인상조치는 고유가 지속으로 UAE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2005년 4월의 임금인상 조치¹⁾ 및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과 더불어, 향후 UAE 경제에 인플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유가와 중동지역으로의 재수출 증가로 수출입 급증 추세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지역으로의 재수출 증가²⁾에 따라 수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02년 512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23억 달러로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2004~05년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23.2%와 23.7%를 기록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 정부지출 증가 등에 따른 내수회복으로 인해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규모는 2002년에 367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602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4~05년 수입증가율은 각각 18.3%와 11.1%를 기록하였다.

수출 호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흑자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2년 145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21억 달러로 3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도 2002년 GDP의 21.3%인 249억 달러로 3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자본 유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바이에서 외국인들의 주택소유가 허용되면서부터 이란 등 중동 부호들의 두바이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두바이 내 부동산 거래의 30% 정도가 이란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의 고층 빌딩들도 이란인 등 중동 출신 외국인 소유로 알려지고 있다

非석유부문의 호조로 고도성장 지속 전망

UAE 경제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최대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의 원유 의존도 축소를 위해 제조, 무역, 금융, 관광 등 非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 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유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이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되고 있으며, 비석유부문의 호조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UAE는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제도³⁾,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개방정

1) 모든 자국민의 임금을 25% 일괄 인상하였으며, 외국 근로자의 임금은 15% 인상하였음.

2) UAE 총수출의 1/3은 중동 및 여타 지역으로의 재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수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UAE의 재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두바이가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양호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표적 중계무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걸프협력기구(GCC) 역내 교역에서 무관세 자유무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임.

3) UAE는 은행업, 부동산 임대업, 석유산업 등 세 가지 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자료: 동아일보 2006년 2월 7일자.

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서남아, 아프리카, CIS, 동구권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을 하고 있는 중계무역의 중심지이자 물류거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UAE는 전국토의 99%가 사막이며,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도 인구 130만의 작은 도시이나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써 발전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중동의 허브로 부상한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인 동시에

관광, 레저, 쇼핑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현재 두바이를 다녀가는 연 관광객 수는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두바이는 최고급을 지향하는 리조트 시설, 사막 최고·최대 규모의 마천루 건설, 불가능할 것 같은 간척사업의 실현, 쇼핑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중동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관광업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영 석】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도 GCC 공통관세인 5%로 낮은 수준이고, 이조차도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하면 100% 환급해주고 있음.